創　刊　辭

國史는 愛國心과 民族精神을 仰揚하는 가장 重要한 學問인 동시에 韓國學硏究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韓國의 政治·經濟·社會·外交·軍事·言語·風俗·文學·思想 等 韓國의 모든 文化의 傳統을 硏究하려면 韓國史를 모르고서는 不可能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自身을 爲하여서만 아니라, 韓國을 硏究하려고 하는 外國人을 爲하여 또는 韓國文化를 世界에 紹介하기 爲하여 國史를 科學的으로 硏究하고 올바른 體系를 세워서 世界史의 一環으로 正當한 位置에 올려 놓아야 하며, 이 重大한 使命을 짊어진 사람은 國史學徒인 것이다.

回顧하건대, 우리는 日帝 三十六年間 日帝의 韓國文化抹殺政策으로 因하여 韓國史硏究에 손을 대지 못하다가 解放後 처음으로 各大學에 史學科를 設置하고 韓國史硏究에 着手하였으며, 그 동안 수 많은 史學徒가 輩出하여 許多한 難關과 險路를 克服하면서 學校 또는 同好者를 單位로 하여 學會도 組織하고 硏究誌도 刊行하여 韓國史에 關한 硏究가 量的, 質的으로 相當히 向上되기는 하였으나 世界的 水準에 比하면 아직 前途遼遠한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韓國史硏究의 年輪이 짧은 탓도 있겠지마는 韓國史를 硏究하는 사람들이 各學校 또는 學會로 分散하여 有機的 活動을 하지 못한 데에 큰 原因이 있는 것이다. 이에 韓國史를 硏究하는 사람들이 總團合하여 보다 더 緊密한 學問的인 紐帶를 맺고 計劃的이고 協同的인 硏究活動을 할 必要를 느끼게 된 것이다. 오늘날 韓國에 關한 硏究가 世界的으로 일어나 外國의 여러 學者들이 높은 水準의 硏究方法과 豊富한 硏究費를 가지고 活潑히 움직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韓國史學徒의 大同團結과 協同 乃至 共同硏究의 必要性을 느끼게 된 것이다.

이러한 趣旨에서 一九六七年 十二月에 서울에 있는 各大學校의 國史學 敎授와 其他 國史學 專門家 七十餘名이 모여서 韓國史硏究會를 組織하고 一九六八年 五月부터 活動을 開始하여 지금까지 달마다 硏究發表會를 가졌으며, 이제 그 硏究成果를 收合하여 「韓國史硏究」 第一號를 刊行하게 된 것인데, 本誌는 年四回 季刊으로 刊行할 豫定이다.

그러나 이러한 重大한 事業은 다만 學者들의 誠意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國家와 社會의 支援이 없이는 有終의 美를 거둘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처음에 이 學會를 發起할 때 資金問題로 여러 번 망설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國家의 均衡된 發展과 世界學界의 動向을 보아서 到底히 傍觀할 수 없는 일이오, 또 우리 史學徒가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므로 우리는 各者 一個月分의 俸給全額을 털어서 이 일을 시작하였다. 이것으로 우선 每月 研究發表會의 費用과 稿料는 充當할 수 있으나 學會誌의 出版費는 漠然한 것이었다. 다행히 國史研究에 큰 關心을 가진 光明出版社 및 高麗書籍株式會社의 社長 李學洙氏가 本誌刊行을 全的으로 引受하여 豫想보다 빨리 世上에 나오게 되었으니 李社長의 好意에 對하여 深甚한 謝意를 表하여 마지 않는 바이다.

本學會는 全國의 國史學者들이 自己의 使命感에서 蹶起하여 組織한 學術團體인 만큼 그 構成要素가 精할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出版界의 重鎭인 李學洙 社長이 支援하고 있으니 앞으로 本學會는 달마다의 研究發表會를 勵行함은 말할 것도 없고, 年四回의 學術志 刊行도 어김없이 實行하고, 其他 韓國史의 研究와 發展을 爲한 各種事業을 일으켜 名實相符한 韓國史研究센터가 될 것을 期約하는 바이다.

一九六八年　八月　日

韓國史研究會會長

申　奭　鎬